

SK네트웍스, 1분기 매출 3조원 상회

정만원 사장, 2010년까지 통합마케팅 강화 ... 자산매각 작업 가속화

SK네트웍스가 2004년 1/4분기 매출 3조3669억원, 순이익 1289억원,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 1008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당초 매출액 3조2664억원, EBITDA 897억원, 순이익 330억원이었던 영업목표를 모두 초과한 것이다.

SK네트웍스는 2003년 EBITDA에서 목표를 700여억원 초과한 2792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04년 EBITDA 목표도 경영정상화 계획보다 360억원 많은 4357억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또 2004년 목표를 매출 13조4천553억원, 영업이익 3260억원, EBITDA 4357억원, 경상이익 3224억원으로 예상했으나 경상이익은 5000억~6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K네트웍스는 투자유가증권 매각 4503억원, 회원권 및 부동산 매각 531억원 등 자구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력 및 해외지사, 무역부분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597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채권단, 회계법인, 법무법인, 자금관리단 등을 위원으로 하는 경영진추천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 견제기능을 강화했으며,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아래에 이사회운영위, 사외이사후보추천위, 감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만원 SK네트웍스 사장은 “2004년 1/4분기 실적으로 2003년 회사(당시 SK글로벌)가 겪은 어려움은 사업모델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동성의 문제였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통합마케팅 기업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2010년 EBITDA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만원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EBITDA 1조원 달성 가능한 일례로 SK그룹이 보유한 2500만명의 고객 데이터와 자사 및 SK 계열기업의 브랜드 통합 마케팅 사업을 꼽은 뒤 “최고 브랜드끼리 통합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벌이고 있는 사업에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유통과 물류사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계열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에너지 판매와 정보통신 부문은 SK나 SK텔레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등한 협력관계와 상업적 판단에 따라 거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버린자산운용이 최근 한 일간지에 ‘없어진 4조5000억원을 밝히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며 “SK에 대한 투자자가 104개 채권단의 동의로 이루어진 채무재조정과 관련해 SK네트웍스를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4/22>